



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

콘텐츠 유형: 스팟르포르타주

사진 및 글: 이상훈



## 자전거와 인터렉션

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와 인터랙션을 접목시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파급효과가 있다고 기대해본다.

## <기획의도>

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자전거에 도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듯 싶다.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시설물에도 적용을 시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무궁무진할 듯 싶으며,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발상의 전환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.

### a.자전거와의 소통

자전거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?.. 자전거와 자전거사용자, 자전거와 보행자, 차와 자전거, 자전거와 도로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많다. 각각의 소통의 상대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범위 및 가능성을 찾는다면, 색다른 아이디어 및 자전거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.

## b. 자전거도로의 커뮤니케이션

자전거도로가 현재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, 도로에 따라 자전거 사용자들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와의 소통은 무엇이 있을까? 난 자전거도로위의 자전거마크를 눈여겨 보았다. 단지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안전을 확보해주는 자전거마크는 어떨까?

자전거가 다가갔을 때 자전거마크가 불이 들어오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밤엔 자전거 도로 마크가 빛을 발하면서 안전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과 자전거 이외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지나갔을 경우 적색의 불빛으로 경고음과 함께 경고를 하는 방식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



<그림1-기존의 자전거 표시>



<그림2-자전거가 다가 왔을 때>



<그림3-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다가 왔을때>

### c. 사용자와의 인터렉션

전의 인터렉션에 대한 내용 중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이 되는 인터렉션이 있었다. 자전거 역시 사람들의 신체구조가 다르리다. 옷에 맞는 맞춤형 슈트와 함께 가장 자신의 팔길이 및 페달 위치 키에 맞게 사용자와 자전거가 맞추어진다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지 않을까?...



<그림4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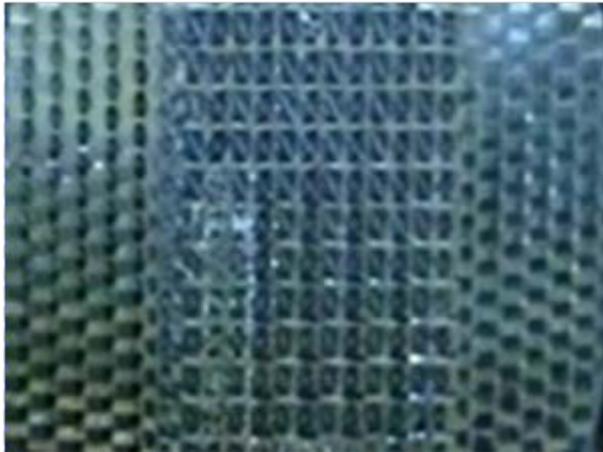


<그림5>

#### d. 자전거의 수신호 커뮤니케이션

유럽의 자전거문화 중 수신호가 잘되어 있어 자전거와 자전거, 자전거와 차 그리고 보행자끼리 서로 안전하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.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의 한 부분에 수신호를 손이 아닌 문자로써 표현을 한다면, 수신호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인지를 하여 안전사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?...

수신호는 그 수신호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 알 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. 유럽처럼 자전거에 대한 수신호 및 문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지만, 그렇지 않은 부분에선 수신호를 문자화 시킨다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.



<그림6>



<그림7>

\*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자전거주차장등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의 아이디어 및 발상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서 실현 가능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, 재미있는 한 요소로 작용을 하여 자전거의 사용자들이 늘어 날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본다. 또한 인터랙션의 분야가 실내뿐 아닌 실외적인 공공장소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사용자중심의 공공디자인이 될 것이다.